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2월 14일 화요일 (음 1월 18일) 제174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13일 도청 상황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당 전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군산조선소 존치, '뜨거운 감자'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문제가 전북도-국민의당 정책협의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3일 전북도와 국민의당에 따르면 도청 상황실에서 송하진 지사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당 전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지원 대표는 군산조선소 존치 문제에 대해 "조선 기능자들이 세계적 수준인데 경기가 나쁘다고 폐쇄해 버리면 호황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정몽준 회장에게 제기했는데 꿈쩍도 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영환 산자부 장관을 만나서 공공선(어업지도선)이라도 발주해서 살려달라 얘기했고 정부에서도 발주하고 있는데 군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의 사회적 책임도 도마위에 올랐다.

조배숙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1조6,000억원을 났는데 영업이익이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해서

### ▶ 전북도-국민의당 최고위 정책협의회

"현대중, 이윤 많으나 조선업만 어렵다... 설득력 없어"

국민의당, 새만금 신공항 조기 건설 등 대선공약 제시

군산조선소를 폐쇄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현대 중공업 때문에 조선업과 4개 대학에서 신설되고 군산 시에서는 이걸 위해서 520억을 투자했다"면서 현대중공업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항변했다.

송하진 지사는 "현대중공업이 전체적으로 이윤을 많이 남기면서 조선업만 어렵다고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내일 군산에서 군산조선소 존치를 열망하는 도민 총궐기대회가 열리는데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주장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물백신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구제역 관련해서 백신 접종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묻는 유성열 의원 질문에 전북도 관계자는 "접종율은

100%이며 농가들 주장에 의하면. 문제는 항체형성률"이라며 "소 50두 미만은 수의사가 대부분은 자가 접종을 하게 돼 있고 겨울에는 영사를 녹여서 놔야하는 등 테크닉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민에게 말하면 다 접종의 것으로 말한다"면서 "그런데 항체형성률이 5%이하인 지역들이 나오고 처음 발생한 점을 산내면 같은 경우 사실상 형성률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항체형성 여부를 정부차원에서 강하게 추적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새만금 신공항 조기 건설 등 전북 발전을 위한 11

대 대선 공약을 내놨다.

공약은 '전라도 개도 1천년'을 기념하는 밀레니엄 파크 조성을 비롯해 새만금 신공항 조속 추진, 금융허브타운 조성, 전북대 약대 신설 등이다.

특히 밀레니엄 파크는 진척이 없는 전주종합경기장 사업을 활용해 국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달 하순 전복으로 옮겨오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각종 금융회사,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금융타운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연어프로젝트'를 추진해, 도시, 농촌 복합지역에 귀향 터전인 신개념 뉴타운 '연어 주택단지'를 조성한다.

탄소산업클러스터, 김제 종자 산업을 러스터,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등 전북 자원에 기반을 둔 미래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 역사자원을 통한 세계관광 명소화 추진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인재용 기자

### 社告

제3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기간: 2017년 2월 16일(목)~2월 17일(금)

장소: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전주매일신문이 동계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와 유망주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주군수배 스키·스노보드대회'를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최: 전주매일신문
- ▲공동주관: 전주매일신문, 전북스키협회
- ▲후원: 전북도, 무주군, 무주덕유산리조트
- ▲참가자격: 스키(만 10세 이상), 스노보드(고교생 이상)
- ▲접수기간: 2017년 2월 15일까지
- ▲참가접수: 이메일(jjmaeil1@hanmail.net) 또는 팩스(063-288-9703), 홈페이지(www.jjmaeil.com)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전주매일

## 도교육청, 올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

주광순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422명

전북도교육청은 올 상반기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교육전문직, 수석교사 등 42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주광순 교육장 김태수 교육장 박숙자 교육장 정동일 교육장

이번 인사는 2017 교육장 공모에서 선발되었던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주광순 학교지원부장을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전주온빛초 김태수 교장을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전주중앙초 박숙자 교장을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난산초 정동일 교장을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전직 임용했다.

또한 남원교육지원청 김학산 교육장을 전북교육연구원 원장으로, 장수교육지원청 김영찬 교육장을 전북과학교육원 원장으로 전직 임용하고,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이상철 과장을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원장으로,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신순희 장학관을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원장으로 전직 임용했다.

이번 인사는 승진인사는 교장 59명, 원장 1명, 교감 59명, 원감 1명, 장학관 1명 총 1백21명이며, 전직 68명, 중임 41명, 전보 94명, 임기만료 공모교장 4명, 임기만료 공모교장

원직부과 1명, 공모교장 9명을 비롯하여 정년퇴직 73명, 명예퇴직 6명이다. /정해은 기자

### 김춘진 민주당 최고위원 "우리나라에 맞는 백신 확보를"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구제역 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즉각 제대로 된 실태를 점검하고 백신 확보와 방역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13일 당 최고위원에서 이같이 밝히며 "모든 전염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2, 제3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는 정책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인재용 기자

##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사상 첫 1000만명 돌파

대한민국 대표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연간 관광객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관련기사 4면) 이는 전주시가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한옥마을 관광객 빅데이터를 분석했던 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물로, 정부가 공식 인정받았거나 다르지 않다.

전주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한옥마을에서 사용된 이동통신 기록과 SNS, 카드매출기록 등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광객 통계를 집계한 결과, 하루 평균 2만9231명, 연간 1066만9427명이 전주한옥마을을 다녀갔다고 13일 밝혔

### 2015년 10월-지난해 9월 기준

매출액 연간 1234억원로

1년 전보다 84억원으로 늘어

연령별로 20대가 가장 많아

다. 이는 전주시가 정부와 손잡고 한옥마을 관광객 빅데이터 분석을 처음 실시한 지난 2015년(2014년 10월~2015년 9월)의 965만3035명과 비교하면 약 9.53%(101만6392명) 증가한 것이다.

또한 시가 앞서 실시했던 한옥마을 관광객 자체 집계 결과 지난 2013년 508만여명, 2014년 582만여명이 다녀간 것

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결과 지난 1년간 관광객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한옥마을 매출액도 하루 평균 약 3억3800만원, 연간 12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1년 전보다 연간 84억원이 늘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한옥마을 전체 관광객의 21.41%인 228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40대 214만여명 △30대 210만여명 △50대 169만여명 △60대 이상 136만여명 △10대 106만여명 등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방문인구가 연간 약 355만명으로 전체

의 33.3%를 차지했으며, 접근성이 유리한 도내 시·군과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지역 관광객이 558만명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방문시기별로는 전주국제영화제 등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는 5월이 1,085,5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7월(975,240명)과 4월(941,315명), 2월(913,278명), 10월(904,453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한옥마을은 축제의 계절인 5월과 10월은 물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봄방학) 기간인 7월과 2월에도 관광객 방문비중이 높아 사시사철 언제나 사랑받는 관광명소임을 재확인했다. /김영재 기자

제3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 · 시민입장에서 일하는 의회 ·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



의회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http://council.namwon.go.kr